

강진, 강진만 갈대축제서 한우 숯불구이 행사

무안 일로읍,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강진군은 오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열리는 제11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와 연계해 강진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한우협회 강진군지부는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강진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한우 할인판매와 숯불구이장 운영, 무료시식회, 물렛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축제 기간 강진완도축협은 이동 판매차량을 통해 지역 농가에서 출하한 한우고기를 시중 평균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하며, 현장에서 구매한 한우를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숯불구이장도 운영한다. 상차립 비용은 1인당 6,000원이다.

한우 무료시식회와 물렛 경품 이벤트는 10월 24~25일과 31일, 11월 1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며, 한우불고기와 육포, 곰탕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또한 강진완도축협은 축제 첫날

인 24일 오후 2시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남도귀리한우 불고기 덮밥 1,000인분 무료 나눔 행사를 열 예정이다. 강진한돈협회와 강진축협소협회도 무료시식회를 마련해 지역 축산물의 맛을 알릴 계획이다.

강진군은 이번 행사가 관광객에게 지역 축산물을 맛볼 기회를 제공하고, 축산농가에는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강진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며 지역 먹거리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축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해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지역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먹거리 행사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전운재 기자



강진만 갈대축제, 한우 행사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일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윤덕·김준연)가 20일 지역 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시각장애인 1인 가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대상 가구의 낡은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자레인지와 생활용품도 지원했다.

김윤덕 일로읍장은 “이번 주거환경 개선이 대상 가구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펴보고, 생활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용운 기자

목포시, 제18회 목포문학상 시상식 개최



목포문학상 시상식 포스터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오는 10월 24일 오후 1시 30분 목포문화관에서 제18회 목포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상금 5,000만 원이 수여되는 박화성소설상 수상자 이상권 작가를 비롯해 목포작가상 본상 김효은 작가(상금 600만 원), 목포작가상 작품상 김진후 작가(상금 400만 원)에게 상을 수여한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시상식을 넘

어 지역 시민과 문학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가을의 정취를 더하는 노래 공연과 수상작 낭송 등이 마련돼 문학의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당선자와의 문학토크’에서는 작품과 창작 과정을 살펴본다. 박화성 소설상 수상작 『소녀들의 유랑극단』의 이상권 작가와 심사위원 소유평 문학평론가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제25기 보건소 은빛건강대학 수료식 성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오는 23일 개막하는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과 연계해 철도 이용 관광객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2026 하반기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21일 “철도 이용 관광객의 여행 부담을 줄이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2026 하반기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함평행 자유여행 상품을 구매한 관광객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향후 열차 운임 전액을 향후 열차 예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쏘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카셰어링 이용 지원 혜택을 새롭게 마련했다. 여행 기간에 쏘카 차량을 이용하면 이용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만 원까지 쏘카 마일리지 쿠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지원이 철도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함평의 다양한 관광지 방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신화의 국화동산’을 주제로 열린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전남광주 최초 자율주행 무인방제기 보급

영암군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농약 살포 작업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광주 지역 최초로 자율주행 무인방제기를 과수 재배 현장에 시범 보급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요 과수 작목인 배와 감 재배농가 2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보급된 자율주행 무인방제기는

정밀 위성항법장치(GPS)와 자율주행 감지장치를 탑재해 과수원 내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 운전자 없이 이동하며 농약을 살포한다.

기존 방제 작업은 농업인이 직접 농기계로 운전해야 해 노동 부담과 농약 노출 위험이 컸지만, 이번 장비 도입으로 작업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영암군은 시범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업인들이 장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수농가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고 스마트농업 확산과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탬이다.

/김기철 기자

신안 압해읍, 취약계층에 사랑의 온기꾸러미 전달

신안군 압해읍은 지난 19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25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온기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압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기동대가 협력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자들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계란, 두유, 쌀국수로 구성된 꾸러미를 전달했다.

권덕환 민간위원장은 “사랑의 온기꾸러미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수정 압해읍장은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성태 기자

